

광양시,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메카 조성 '속도'

폐배터리 재활용·양극재 생산 등 자원 순환 업무협약 친환경 산업 분야 경쟁력·산업 밸류체인 강화 기대

광양시가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메카를 조성하기 위해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접견실에서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인화 시장,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최중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본부장, 한동수 포스코퓨처엠 광양양극재 생산부장, 임지우 포스코H Y클린메탈 대표, 마상복 SK에코플랜트 부사장, 김학범 (주)광양이앤에스 대표, 고대권 (주)에콤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식은 광양시에 소재한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및 양극재 생산 관련 기관·기업 간의 협약을 통해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광양시와 (재)전남테크노파크,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국가 공모사업·신규 사업 발굴 등 행정적인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참여기업은 폐배터리의 전처리·후처리,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양극재 생산 등 폐배터리 자원 순환을 위한 유기적 협력을 약속했으며, 광양시가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광양시가 최근 시청 접견실에서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협약체결을 통해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산·학

연이 협력해 지역에 필요한 산업 밸류 체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인화 시장은 "광양시는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거점으로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소재 전주기 공급망을 완성하기 위한 비전을 달성하고 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체결

은 친환경·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좋은 기회인 만큼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선두 주자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차전지 재활용 사업 활성화 및 기업지원을 위해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테스트베드에서는 총 15종의 해체·분리·추출·분석 장비구축을 통해 본격적으로 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광양시는 이차전지 기업 지원과 협력을 위해 후속 사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며,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과 유관 기관·기업간 교류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광양=양홍철기자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가 '지구인에서 우주인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사흘간의 여정을 마쳤다. 사진은 전국 각지에서 축제 현장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행사를 즐기는 모습. 〈고흥군 제공〉

'위대한 비상'... 고흥우주항공축제 '성료'

우주 터미널 개통식·누리호 발사장 견학 등 인기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군이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4~6일 사흘간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인류의 위대한 비상 '지구인에서 우주인으로'라는 슬로건으로 국내 유일의 우주 축제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흥우주항공축제 주요 프로그램 준비 상황 점검과 누리호 실물전시관·미디어아트 등 핵심 전시관,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신비한 우주여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주의 문을 여는 고흥 우주 터미널(Spaceship terminal) 개통식을 시작으로 1년에 단 한 번 축제 기간에만 개최하는 '나로우주센터 누리호 발사장 견학', 고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한국형 과학탐사 로켓인 KSR-I·II·III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KS-LV-I-II(나로호·누리호) 실물형 특별 전시관 운영을 통해 우주로의 여행길

을 떠났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은 어린이날 연휴에 열리는 만큼 전국 각지에서 우주 과학에 관심있는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해 전국 유일의 우주항공축제라는 명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한편, 축제가 열리는 나로우주센터는 세계 13번째 우주 센터로 지난 2009년 6월11일 준공됐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와 누리호가 발사된 역사적인 현장으로 전남도 고흥군 봉래면 한반로 490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우주기지다. /고흥=최봉환기자

구례임업후계자협의회, 첫 청년회장 탄생

문준호 사무국장 회원 추대 선출

구례군임업후계자협의회에 첫 청년회장이 탄생했다.

7일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임업후계자협의회장으로 당선된 문준호(36·사진) 회장은 지난해 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다양한 활동과 우수한 능력을 보여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의 추대로 회장에 선출됐다.

그동안 구례군임업후계자협의회에

서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각을 가진 젊은 임업인의 참여를 바라고 독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상황과 분위기가 반영돼 청년회장이 선출될 수 있었다.

구례군에서 청년회장이 당선됨과 동시에 구례군임업후계자협의회 청년가입자가 1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 구례군 임업인들 사이에서 젊은 바람이 불고 있다.

임업은 비건 트렌드와 K-푸드 열풍



에 입산물 가공식품의 수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으며 생산·가공식품이 아직 다양성이 부족하기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구례=임종철기자

음악분수 어우러진 '화순천 유채 꽃길' 조성

화순천변 나드리교·별고천 인근 2.1ha 규모

화순군은 7일 "봄을 맞아 군민들이 활기찬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화순천변 나드리교 인근과 별고천에 2.1ha 규모의 유채꽃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화순천변 꽃길의 유채꽃은 2월 종자 파종을 시작해 잡초 제거, 배수 관리 등

세심한 관리를 거친 후 5월부터 개화를 시작했다.

또한 별고천 꽃길은 유채와 더불어 꽃창포, 붓꽃, 수련을 식재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화순 꽃길 음악분수는 꽃길과 더불어 기존에 식재된 가우라, 붓꽃레아 등 다년생 꽃을 통한 계절별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객은 물론, 군민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며 화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화순음악분수 공연은 주 4일(수·금·토·일) 오후 8시에 운영하고 토요일은 오후 9시에 한 회 추가 운영하며 화당 2·5분 공연을 진행한다. /화순=이병철기자

담양군 여성단체협의회, '우리동네 플리마켓' 운영

과일컵 300개 판매·수익금 기부

담양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최근 제45회 담양군민의 날을 맞아 담양문화회관 광장에서 '우리동네 플리마켓'을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행사는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 농산품인 토마토, 적포도, 청포도, 질펀 2종이 담긴 과일컵 300개를 판매했다. 행사를 통해 얻은 판매 수익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미례 담양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군민의 날을 맞이해 베품시장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웃음

꽃이 활짝 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장성군 '청렴·감동 행정' 공직사회 다짐

5월 정례조회서 청렴실천 결의·군정 성과 공유

장성군은 "최근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5월 정례조회에서 '청렴·감동 행정' 실천 의지를 되새겼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이날 공직자들은 청렴결의대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금품·향응 금지 ▲알선·청탁 금지 ▲신뢰 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이어 장성군의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브랜드 '휴먼행동단'의 성공적인 확산과 군민 감동 행정 실현을 결의했다.

장성군은 청렴감동회 개최, 청렴 자각습습시스템 운영, 청렴 라이브 교육 등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2년 연속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을 달성했다.

'휴먼행동단'은 ▲휴(休), 군민이 편안한 장성 ▲먼저 찾아가는 행정 ▲'주민 감동 프로젝트 추진단'의 출범

말이다.

기존 '찾아가는 사업'을 총망라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공직자, 기관, 자원봉사자, 전문가 47명이 소속돼 있다.

군정 성과 공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장성을 장안지구 선정, 국비 48억원 확보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추



장성군 공무원들이 '청렴·감동 행정'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정=김문태기자

순천시, 1회 추경 1조5천394억 규모 편성

본예산비 8.13% ↑...17일 최종 확정 예정

순천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예산 대비 1천157억원을 증액 편성해 지난달 30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본예산 1조4천237억원 대비 8.13% 증가한 1조5천394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따르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 신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만 전략적으로 편성했다.

세입재원은 2023년도 정산잔액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

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분이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신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6억원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10억원 ▲소상공인 보증 대출이자 지원 3억 원 등을 계상했다.

생태도시 재설계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명품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신청사 문화스테이션 건립 90억원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30억원 ▲자연적 거도·보행환경 정비 11억원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 4억원 등을 반영했다.

순천형 보건·복지정책사업으로 ▲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부지 매입비 20억원 ▲어르신 건강 바우처 지원 2억원 등을 증액했다.

농축수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건립 9억원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및 고소득 작목 육성 7억원 ▲축산물 종합 가공유통시설 지원 6억원 등을 편성했다.

노관규 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경제 활로를 찾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투자와 시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제1회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주요 사업들이 추진돼 민생경제가 더욱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1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순천=정기기자